

보도해명자료 (‘19. 4. 1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 우려 없음

(문화일보 4.17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차의 전력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으며, 향후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 우려는 낮음
- 4월 17일 문화일보 <전기차 보급목표 300만대라며... 탈원전 후 충전은 ‘無대책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300만대 보급을 추진 중이며, 80만대만 보급하여도 1,000MW 이상 전력량이 필요
 - 그러나, 산업부는 2030년 전기차 100만대 보급 및 전력수요 290MW만 반영 중으로 앞뒤가 맞지 않음
- 따라서, 2024~2026년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으며, 2030년 전력수급 차질 불가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(‘17.12월)에는 수립 당시 전기차 보급목표*인 ‘30년 100만대의 전력수요 반영
 - * 「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」을 통해 보급목표 제시(‘15.11월)
-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 목표의 변화를 전력수요 전망에 반영할 계획

-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차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반영
→ ‘30년 380MW(하계), 290MW(동계)

- 전력피크 시간대*의 전력수요가 중요하나, 전기차 충전은 오전·오후, 야간·심야까지 분산되므로 시간대별 충전 패턴 고려 필요

*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당시 전력피크 시간대 기준: 하계 15시, 동계 11시

- 전기차 보급이 활발한 제주도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대별 충전 패턴을 고려하여 전력수요를 산출

* (제주도)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 중심 → 주로 주간에 급속 충전
(캘리포니아주) 자가용 전기차 중심 → 주로 야간에 완속 충전

- 이를 바탕으로 ‘30년까지 전력설비 예비율 22% 이상 유지 가능한 수준의 설비계획을 제시

-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전력수급 차질 우려는 낮음

- ‘30년 300만대 보급계획을 반영하여도 전력 예비율은 21.6%로 전력수급에 문제없음

- 향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적정 예비율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급 등 전력수요 변화 요인을 분석하여 반영할 계획

※ 문의: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, 김동환 사무관(044-203-5153)